

GCF 첫 아프리카 구조적 대화(Structured Dialogue)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려

2016.10.25 송도 - 녹색기후기금(GCF)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첫 아프리카 구조적 대화(Structured Dialogue)를 3일간 개최, 2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전략적 참여 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2)가 모로코에서 개최되기 2주 전에 열린 이번 대화는 아프리카 국가가 GCF에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 개발을 지원하며, 이번에 논의되는 로드맵은 GCF 이사회에 자금지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번 구조적 대화는 다양한 세션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GCF 및 최근 이사회 결정이 각국의 기후 행동을 어떻게 지원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특히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기여(NDA)와 국가 적응계획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GCF 국가지정기구와 인증기구가 저배출 기후 회복력 있는 사업 제안서를 기획·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번 구조적 대화에는 GCF NDA, 아프리카 각 국각 예산, 기획, 재무부, UNFCCC 연락담당, GCF 이행기구 및 국제·지역·국가 파트너가 주로 참석한다.

이번 첫 아프리카 구조적 대화는 자히르 파키르(Zaheer Fakir) GCF 공동이사(개도국 대표), 후세인 세이니 나포 (Hussein Seyni Nafo) 아프리카 협상그룹 의장, 우세이노 나쿨리마(Ousseynou Nakoulima) GCF 국가프로그래밍 국장이 주재했다.

GCF의 아프리카 지원은 10월 이사회 개최 직전, 첫 사업 자금지원 지출로 41개 인증기구 중 하나인 어큐먼 펀드(Acumen Fund)에 5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중요한 이정표였다. 동아프리카 카위사위 벤처 펀드(KawiSawi Ventures Fund) 설립에 자본 출자한 방식으로, GCF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첫 사례가 되었다. 지원금은 르완다와 케냐에서 태양 에너지 솔루션 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원문 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first-gcf-structured-dialogue-with-africa-kicks-off-in-cape-town?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